

2025 MADE IN SUNGSHIN

공모전 수상작 성과집



다전공 성공 후기 '전공플루언서' 부문

대상	복수전공의 교차로에서 찾은 나의 길 5 이예솔 사회교육과 (2022)
최우수상	환승전공: 두 개의 전공, 두 배의 고민이 아니라 두 배의 성장이었다 15 구노현 소비자산업학과 (2024)
	복수전공이 고민된다면 19 이서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3)
우수상	두 개의 전공,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25 김희재 서비스디자인공학과 (2022)
	백지 위에 그린 법과 외교, 나만의 길을 만들다 29 김민주 법학부 (2024)
	복수전공, 희망편의 길 33 이송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1)

복수전공의 교차로에서 찾은 나의 길

이예슬 | 사회교육과

◎ 참가동기

다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내가 경험한 도전과 성장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회교육과 컴퓨터공학.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야말로 미래 교사가 준비해야 할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 여정을 에세이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작품설명

이 글은 사회교육과 전공자로서 교직 이수를 병행하며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한 나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학문을 넘나들며 겪은 시행착오와 성찰,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교사로서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왜 다전공을 선택했는가', '어떻게 버텼는가',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전공이 단순한 '스펙'이 아닌 '성장 서사'가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교차로에서 찾은 나의 길

1. 교사의 꿈에 대해 고민하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스승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춘기라는 방향의 시기에서 마주한 담임 선생님이 그렇다.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불안정하게 버티고 있을 때, 선생님은 늘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지지해 주셨다. 그래서일까. 나도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을 달려왔다. '사회'라는 과목이 좋아해서가 아닌, '교육'이 좋아서 사회교육과를 선택하였다.

나의 주전공인 사회교육과는 사회과학 제 분야의 학문을 배우고, 교과 교육적인 주제를 접목하는 방법을 배운다. 고등학교 시절 생각했던 학과 수업은 단순히 수업 시연, 교과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1~2학년인 저학년에는 사회과학, 즉 정치, 경제,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 등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했다. 새내기였던 나에게서 각 사회과학의 강의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학창 시절에 사회 과목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더 큰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내 전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교직 과목은 재밌게 듣고 잘 따라가는데, 사회가 잘 안 맞으면 과를 바꿔야 하나?', '이 학과는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들만 온 걸까?', '교사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꿈을 포기해?' 진로를 하나로 확정 지어 놓고 걸어왔던 나의 길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의 꿈인 교사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회교육과 내 복수전공 간담회를 통해 복수전공을 통해서도 교직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가로 지도 교수님의 상담을 통해, 복수전공 교직 생활은 어떠한지. 선배들이 어떻게 진로를 잡으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에게 맞는 학과를 찾기 위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2. 나에게 맞는 전공은 무엇일까?

우리 학교 제도를 찾아보면,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 교직]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 다른 전공도 경험해 보고 싶었던 나는 전공심화라는 선택지를 지우고 생각했다. 이왕 다른 학과 수업을 듣는 것이면 학사 학위를 따지고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찾아보았다. 나는 선배들이 많이 하는 복수전공 학과와 생각해 둔 학과를 나열하여 메모장에 적어 보았다. 초반에 고려했던 학과는 다음과 같다. [윤리교육과 / 지리학과 / 심리학과 / 국어국문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컴퓨터공학과 / 서비스디자인공학과 / 디자인과].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이 많은 편이었기에 이렇게 다양한 학과가 나왔다. 앞으로 3년간 배워야 하는 학문이기에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부·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 여름방학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자 했다.

'1.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인가 2. 다른 진로의 가능성이 있는가 3. 흥미와 관심이 가는 분야인가' 내 가 세운 기준은 위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두고 학과를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도 교직은 따고 싶었다. 중고등학교에서부터 1순위로 뽑았던 교사의 꿈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교직 설치 학과를 성신여대 교직과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 보았다. 사범대학에 있는 학과는 물론이거니와, 비사범계 학과에서도 교직 이수가 가능했다. 이를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 남은 후보군은 [윤리교육과 / 심리학과 / 지리학과 / 국어국문학과 / 컴퓨터공학과]이다.

두 번째로 복수전공을 할 학과에서는 '교사'라는 진로에 한정 짓고 싶지 않았다. 앞의 말과 모순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TO는 점점 줄고 있고, 교사의 업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정 안 된다면 다른 진로를 고려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경험과 적성을 찾고 싶어 복수전공을 생각한 것이기에, 비사범대 쪽으로 생각하고자 했다. 그 결과 사범대학 내 윤리교육과는 사회교육과와 같이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후보군에서 배제했다.

< 2022 이후 학번

학부	계좌종별	포사과목	입학 평형	승인 현황	비고
국어국문학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국어	39	3	
영어영문학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영어	61	5	
일본어영·문화학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일본어	45	4	
홍익재양·문화학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홍익재	46	4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과)	포사과목 없음	39	3	
지리학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지리	33	2	
수리통계정보(사계)인스텍부 수학전공	윤리학과 영교사(2과)	수학	34	3	
수리통계정보(사계)인스텍부 통계학전공	윤리학과 영교사(2과)	수학	36	2	
영문다문화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영문·영문다	39	3	
체육산업학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개방	46	3	
내외국문·통일교육 서동영양학전공	영문교사(2과)	포사과목 없음	35	3	영문서번처증 필수
사회과 생명정보의 신산업과	윤리학과 영교사(2과)	개방	38	2	
인도학과	보건교사(2과)	포사과목 없음	86	6	간호서번처증 필수

* 자연과학대학 화학계(수학)인스텍(4과)융합학부 화학전공은 2021학번부터 교직이수 선발하지 않음

[그림 1] 교직 설치 학과 안내 자료

세 번째로 복수전공을 할 학과에서는 수업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었다. 사회교육과에 사회를 좋아해서 오는 학생도 있겠지만, 나처럼 사회 과목을 비교적 잘해서 혹은 교사가 되고 싶어서 오는 학생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는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전공에서 흥미를 크게 못 느낀다면, '다른 전공을 통해 그 흥미를 채우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위에서 제시한 학과 중 흥미와 관심을 보인 학과는 국어국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였다. 국어국문학과는 문법은 재미를 느꼈지만, 다른 문학 작품의 심층적인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많고 많던 후보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심리학과 / 지리학과 / 컴퓨터공학과]였다. 이후에는 졸업 요건과 더불어 나와 잘 맞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았다. 심리학과는 실제로 뇌 과학을 배우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알아야 하기에 따라가는 것이 벅차다고 느꼈다. 지리학과는 22학년도 당시 졸업 논문이 존재했었기에, 실질적으로 컴퓨터공학과가 유리한 상황이었다. 최종적으로 1~3순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교양 과목이었다.

3. 교양으로 적성을 발견하다

다른 학과와 달리 사범대학에 속한 학과는 공통 교양을 15학점이 아닌 9학점만 들으면 된다. 기초 필수 교과목인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 필수이기에 실제로 내가 결정해서 듣는 과목은 한 과목이다. 영어, 제2외국어, SW 문해, 경험적·수리적 추리 영역 중 골라서 강의를 수강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카테고리 4가지나 있어 당황했지만, 이것도 하나하나씩 생각하다 보니 쉽게 고를 수 있었다.

영어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넘어가고, 제2외국어는 그 언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SW 문해 아니면 경험적·수리적 추리 영역인데, 수학은 도저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SW 문해로 선택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학년 때 들었던 SW 문해 강의는 '오픈소스 SW 활용'이었다. 해당 강의는 ms-office와 대등한 기능을 하는 오픈 오피스를 활용하여 간단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강의였다.

초반은 이론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오픈소스 SW의 기본적인 개발 문화, 정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다룰 때부터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되는 실습 부분이었다. 이론으로만 그쳤다면 금방 외우고 잊는 것을 반복했을 텐데,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시범을 보이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스프레드시트를 다루는 방법, 파이선으로 코딩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놀이처럼 다가왔다. 이 교양을 계기로 '아, 내가 컴퓨터와 잘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던 나는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해에 복수전공을 신청할 때, 1지망은 컴퓨터공학과, 2지망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3지망은 지리학과로 작성하였다. 컴퓨터공학과를 1지망으로 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교직 이수를 통해 졸업 시 2개의 교원자격증을 얻을 수 있고, 정보·컴퓨터 과목은 더 주목받는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2지망도 공대 학과로 정했는데 이는 교양과목의 영향이 크다. 코딩이 나와 잘 맞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디자인까지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3지망은 지리학과로 자연 지리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지원했던 기억이 있다. 최종적으로 1지망이 선발되어 지금까지도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다.

4. 서로 다른 두 학문, 난관에 봉착하다

그 당시 최고의 선택을 했기에, 순조롭게 2학년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나의 오만이었다. 사회교육과의 공부 습관에 맞춰져 있던 나는 2학년 초반에 컴퓨터공학과 수업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주전공인 '사회교육', 복수전공인 '컴퓨터공학'은 너무나도 다른 계열의 학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사회교육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말 그대로 '사회과학'이기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고, 정

답이 없는 문제를 성찰하곤 한다. 학자마다의 관점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자가 제시한 이론, 정의, 법 부분이 아니라면 답이 추상적인 편이다. 그렇기에 사회교육과의 공부 방식은 기본적으로 암기와 이론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 1년간 그렇게 공부해 온 나는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수업에서도 이 방식을 활용하였다. IT 개론, 컴퓨터 구조는 HW 부분을 다루는 과목이기에, 컴퓨터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강의식 수업으로 컴퓨터 배경, 이론을 다루는 과목은 위의 공부 방식이 잘 맞기도 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다른 점을 보인 것은 실습 위주의 과목이었다. 웹 프로그래밍, 자바 프로그래밍은 직접 코드를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곤 한다. 실습 과목에서조차 나는 사회교육과에서 공부하던 방식을 적용하였다. 중간고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시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처음 보는 점수를 받게 되었다.

내가 고집하던 그 공부 방식은 이론, 개념 중심의 강의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는 중간고사와 과제를 하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깨달은 점은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단 하나의 논리적 오류도 허용하지 않고, 답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교육과의 과목은 위계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에, 선수 과목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선수 과목을 작성하고, 이를 듣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에 따라오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2학년 1학기에 들었던 자바 프로그래밍이 그러했다. 초반에는 잘 따라갈 수 있었으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모르는 상태로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 후반부에는 모르는 용어가 더 많아졌다.

시험 문제에서도 이론이나 역사를 서술하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코드를 작성했을 때 나오는 결괏값,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수기로 코딩하는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때 무조건 암기보다는 실습 코드를 따라 하면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문제에서 숫자를 바꾸어 공식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듯이, 컴퓨터공학과 문제도 코딩 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사례를 중심으로 암기하던 방식은 점점 이과적 논리에 맞춰 서술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5. 공부의 방향성을 찾다

2학년 1학기에는 공부 방식, 선수 과목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23학점을 들었기에 비교적 낮은 성적을 받았다. 2학기에는 이를 교훈 삼아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명확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법률관계** 권의 ㅁ 소유

***법률관계의 의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 권리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 의무자: 법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자

***법률관계 성립: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계약)**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해 법률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관계성립을 위한 주체(당사자), 객체(목적), 의사표시 존재**

1. 당사자 즉 권리주체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소지
2.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함
3. 당사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함

다문화 집단

-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

- 인종주의(비탈론, 2010: 396) - 개인을 문화라고 믿는 것은 어떤 사람/그룹을 어떤 문화로 규정하는 것
- 인종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문화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는 믿음

원오적 인종주의(aversive racism) vs 현대적 인종주의(modern racism)

원오적 인종주의의 거침 없음, 불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불편, 불안, 인종에 의한 심각한 차별은 더 이상 없음)으로, 두려움 등을 동반한 믿음

현대적 인종주의의 거침 없음, 불인종에 대한 연정, 이주인의 권리를 위한 규범적 근거 다르게 그려나 동시에 갖게 -> 차이를 인정하는 행동

다문화주의(비탈론, 2019: 366-375)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의 원리
이주인에 대한 연정, 이주인의 권리를 위한 규범적 근거 다르게 그려나 동시에 갖게 -> 차이를 인정하는 행동

[그림 2] 사회교육과 전공 수업 필기본

do-while 문(실습)

앞의 while문을 do-while문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다.

```

int main()
{
    int sum = 0;
    int number;
    do
    {
        cout << "정수를 입력하십시오(끝내고 싶으면 0 입력): ";
        cin >> number;
        sum += number;
        cout << "입력한 정수들의 합은: " << sum << endl;
        return 0;
    } while (number != 0);
}
    
```

TCP sequence numbers, ACKs

simple telnet scenario

Host A sends Seq=42, ACK=79, data='C' to Host B. Host B receives it and sends ACK=79, ACK=43, data='C' back to Host A. Host A receives it and sends Seq=43, ACK=80.

[그림 3] 컴퓨터공학과 전공 수업 필기본

사회교육과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며, 교수님이 설명하신 사례 내용을 강의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특히 각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정리했던 것 같다. 법이라면, 관계 성립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사회학이라면, 과거와 현대의 이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는 각 개념, 이론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내가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가며 공부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옆에 인형을 두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혼자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백지 암기를 통해 마무리하곤 했다.

컴퓨터공학과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화면에 보여주는 필기나 코드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C++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작성해 주시는 것 말고도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험에서도 수기 코딩을 중심으로 나오기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읽고, 큰 틀을 짜는 연습부터 차근차근히 했다. 이론 과목인 컴퓨터 구조의 경우, 호스트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등. 과정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전처럼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닌, 흐름을 이해하고 직접 설명할 수준으로 공부하니 성적도 만족할 만큼 오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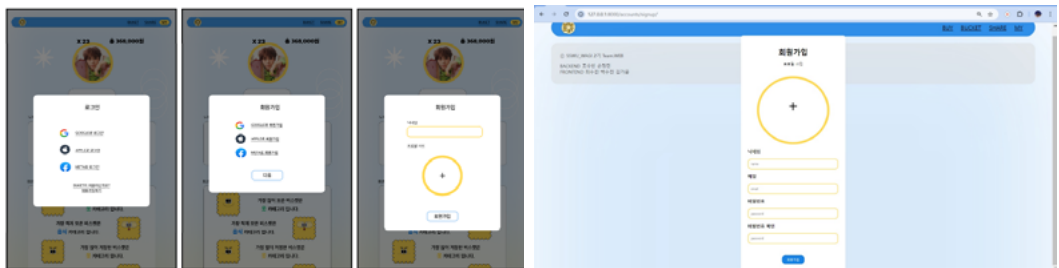
누군가는 이를 읽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심화전공을 선택했다면 굳이 새롭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물론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하나의 전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이다. 하지만 나는 다전공을 통해 근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사회교육과에서의 성찰적 사고는 컴퓨터공학의 분석적인 사고를 보완하고, 공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사회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사고의 틀을 넓히는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학과 내 활동으로 역량을 키우다

학과 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회교육과 안에는 학회와 교사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1학년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교사와 함께 수업 만들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활동에 거의 매번 참여했다. 우리 학과 내 동기와 선배분들과 함께 수업을 구상하고 직접 중학생들 앞에서 실현해 본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학과 내에 있는 다문화 교육학회도 매년 학술제를 위해 2~3학년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여 학술지를 작성한다. 작년에 다문화 교육학회 학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회원들을 이끌고, 교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의 역량이 많이 키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교육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나는 2학년이 끝나고 컴퓨터공학과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복수전공을 하는 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3학년에는 학교 내 개발 동아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다 보니 개발 동아리는 연합동아리 / 정동아리 / 학과 내 동아리 등 다양했다. 나는 아직 코딩에 대해 잘 모르기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공부하며 성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원해 본 곳은 '성신여대 컴퓨터공학과 과 동아리 WAGI'였다. WAGI를 선택한 이유는 학기별로 C++ 스터디와 자료구조 스터디를 한다는 점이였다. 프로젝트도 WEB / APP / Game 자신의 관심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따라왔다.



[그림 4] 웹 개발 프로젝트 - BUSKET

다른 학과 내의 과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벅찬 일이었다. 복수 전공생으로서 들어온 사람은 나밖에 없기도 했고, 코딩 테스트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했기에 조금의 난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실히 제시된 문제를 읽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무엇을 요구하고, 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나만의 방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다른 팀원분들과 함께 웹 개발을 진행했던 경험이다.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것과는 실제로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 웹 디자인을 위해서 피그마라는 툴을 활용하고,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코드를 유튜브로 따로 공부하곤 했다. FE(프론트엔드)에서 대략적인 페이지를 만들면, BE(백엔드)에서 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짰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깨지기도 해서, 이를 다시 복구하는 것에 애를 먹기도 했다. 그래도 큰 노력과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흥미와 자기 계발을 위해 참여했던 동아리 활동은 실제 프로젝트란 무엇인지를 크게 와닿게 해주었다. FE 팀이든 BE 팀이든, 어느 역할을 담당하든지 간에 서로의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다. 코드가 꼬여서 구현이 안 될 때는 상대방의 코드를 보고 그에 맞춰 수정해야 하기에, 주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교사가 안 된다면 개발자로서 진로를 바꿔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쉽게 도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7. 다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에게 복수전공은 단순히 학점을 채우는 선택 그 이상으로 다가왔다. 두 개의 전공은 각각 다른 지식과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틈을 오가며 수없이 나의 한계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두 학문이 교차할 때 생기는 새로운 지점은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의 강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사회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눈,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론의 결합은 미래 교실의 변화에 꼭 필요한 역량인 것 같다.

복수전공은 새로운 도전과 고난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 가능성을 확장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두 전공 속에서 바쁜 과제와 일정이 기다릴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많은 도전을 해보면서 미래의 교사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사람을 다루는 일'의 본질은 결국 다양한 관점과 경험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학생들에게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다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몇 가지 조언해 주고 싶다. 첫째, 목표를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야지!', '다른 친구들이 다 하니깐 나도 해봐?'가 아니라 이 전공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두 전공을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에는 교사가 최우선 목표였고, 교직 이수를 통해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공동체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볼 것. 학교 수업에서 듣는 이론과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이 별개라는 점을 과 동아리에 들어가고 나서 깨달았다. 그렇기에 고민이 되는 전공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학회나 동아리, 혹은 강연 등을 통해 한 번 접해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고 끝까지 완주할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특히 나는 3학년 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일이 쏟아지다 보니, '괜히 했나? 어차피 교사

할 건데 잘못 선택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갈 길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대전공이 본인에게 잘 맞는다면 그만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적성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긴다. 아직도 고민하는 학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상 말을 줄이도록 하겠다.

다전공 성공 후기 '전공플루언서' 부문
최우수상

환승전공: 두 개의 전공, 두 배의 고민이 아니라 두 배의 성장이었다

구노현 | 소비자산업학과

◎ 참가동기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막연히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지식을 더 쌓아야 할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을 선택할 때도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정된 복수전공 여석과 학점을 기준으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 두 전공을 동시에 공부하면 학업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 부담, 캠퍼스가 달라 수강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일 전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기존 전공을 유지한 채 '추가로'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두 전공을 병행하면서 저는 전공 간의 연결 지점을 발견했고, 막연했던 꿈이 점점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은 저에게 진로를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진로를 확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직도 복수전공을 망설이는 학우와 후배들에게 전공을 하나 더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본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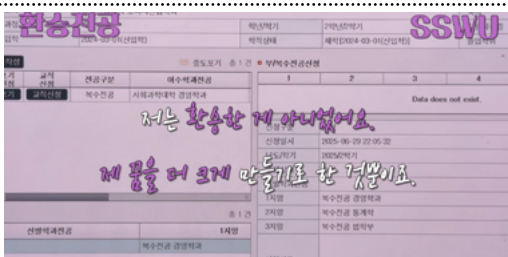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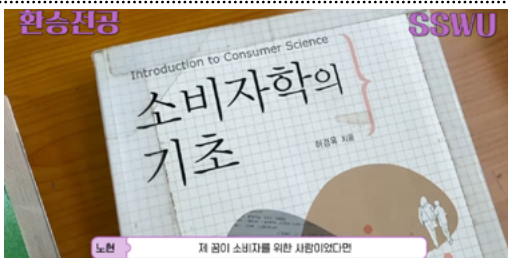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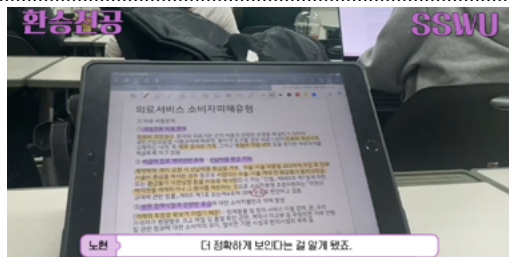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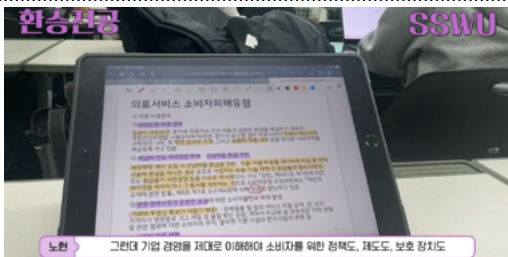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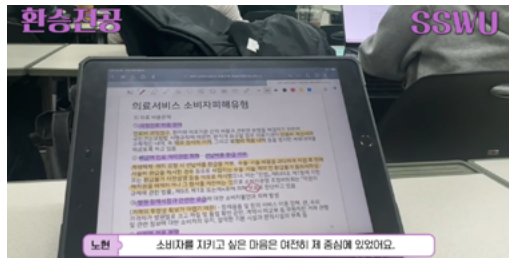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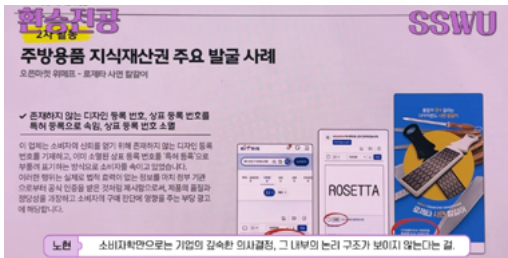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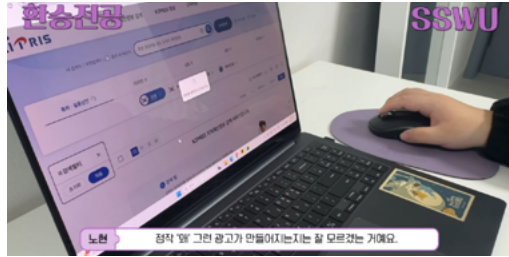
◎ 작품설명 #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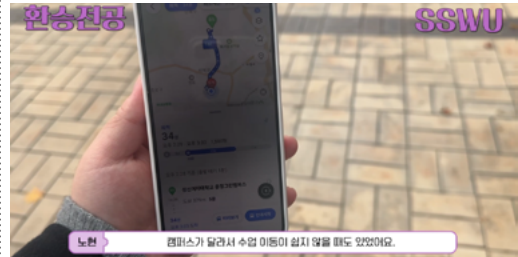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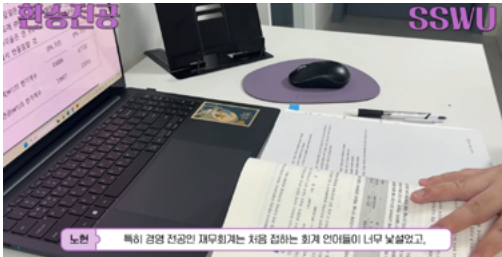
'환승전공: 두 개의 전공, 두 배의 고민이 아니라 두 배의 성장이었다'라는 '전공플루언서'라는 공모전 이름에 걸맞게 인기 프로그램 환승연애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공과 새로운 복수전공 학문을 연결하고 꿈과 시야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전공 선택 과정에서 마주하는 학점 기준, 학업 난이도에 대한 불안, 캠퍼스 간 이동의 제약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녹여, 실제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망설이고 느끼는 부담을 공감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작품은 전공을 하나 정했다고 해서 다른 전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은 여러 명과의 관계처럼 확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머러스하게 전달합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전공을 '확장'하며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수전공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학문에 적응해 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출발점이며, 이 작품은 그 첫걸음을 솔직하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환승전공: 두 개의 전공, 두 배의 고민이 아니라 두 배의 성장이었다

#UCC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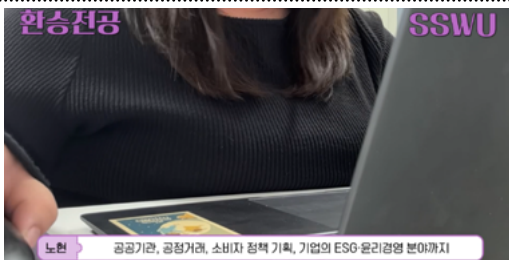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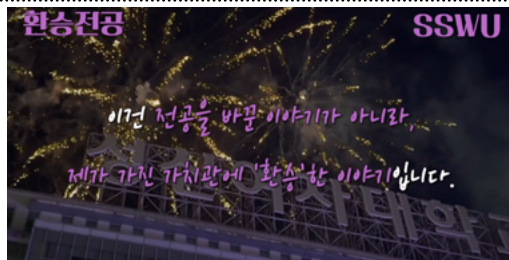
노현 | 이걸 빼면고 나니니까, 제 진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노현 | 예전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데이터링 같은 소비자 보호만을 꿈꿨다면,



노현 | 공공기관, 공정거래, 소비자 정책 기획, 기업의 ESG-윤리경영 분야까지



1.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유

나는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해결하고, 더 정의로로운 시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소비자학을 전공하면서 피해구제 제도-소비자 권익 보호-불공정 거래 문제에 깊은 관심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들이 기업과 시장 구조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질문이 남았다.

소비자학은 소비자의 선택 과정, 태도, 만족도 등 "사람" 중심의 학문이고, 경영학은 시장 전략, 마케팅, 재무, 조직 등 기업의 운영 전반을 다룬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소비자 피해 구제는

-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 시장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며,
- 소비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역량 기업의 언어로 말하고, 시장의 논리를 읽는 능력이 필요했고, 경영학 복수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2. 복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특히 회계 관련 커리큘럼은 새롭게 보는 개념들이 많아 초반엔 따라가기 벅했다. 하지만 소비자투자와 자산관리 수업에서 익힌 기초 회계 용어와 금융 구조 이해가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회계 수치나 시장 데이터를 볼 때 단순한 숫자로 보이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 기업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 가격 결정 과정의 문제점까지 연결해 생각할 수 있었다.

3. 두 전공을 결합하며 느낀 감정

✓ "소비자 관점"을 잃지 않는 경영 분석 능력
경영 전략이나 시장 분석을 배울 때도 항상 "이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지점은 어디일까?"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공정 요소는 없는가?"와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 기업의 언어를 이해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관계
이 능력은 소비자 피해구제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피해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는 시장 구조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전공을 통해 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구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했다.

소비자학은 나에게 문제를 보는 눈을, 경영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

두 전공은 서로를 더 빛나게 했고, 내가 지향하는 정의로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에만 한 발 더 다가가게 해주었다.

To, 복수 전공을 망설이는 학우와 후배들에게

복수전공은 공부량이 조금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훨씬 넓혀주는 기회가 된다. 두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쌓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진로가 열리기도 하고, 꿈꾸지 않았던 분야에서 감정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복전은 '부담'보다는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뚜렷한 진로가 없어도 두 전공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전공 성공 후기 '전공플루언서' 부문
최우수상

복수전공이 고민된다면

이서연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참가동기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주전공으로 시작하여, 이후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을 이수하며 비로소 저에게 적합한 학문적 방향과 진로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 당시에는 전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학업 성취 또한 기대만큼 높지 않아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수강한 정치외교학과의 기초 강의를 계기로 학문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고, 복수전공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신여대의 전공 선택 제도와 비교과 프로그램이 저의 성장에 실질적인 발판이 되었고, 두 전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공공외교라는 진로가 명확히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전공 제도가 어떻게 학생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혀주는지 공유하고자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작품설명

본 작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으로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학문적 발견, 성적 향상, 그리고 진로 구체화를 서사적으로 담아낸 전공 성공 후기입니다. 미술 전공 출신으로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전공 적성과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겪었지만, 성신여대의 복수전공 제도를 통해 정치외교학을 접하면서 학업에 대한 확신과 동기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논술형 평가 방식이 저에게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계적인 학습법을 정립하면서 한 학기 학점이 3점대에서 4점대로 상승하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공공외교연구회 학회 활동, 정의과 논평대회 입상, 학술제 참여, 영원무역 자유민주주의 장학금 수혜 등 복수전공생에게도 넓게 열려 있는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콘텐츠 제작·방청 프로그램·멘토링 활동을 통해 공공외교 실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글은 두 전공의 시너지 속에서 공공외교라는 진로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제가 목표로 하는 KF(한국국제교류재단) 진출 준비 과정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다전공 제도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회의 폭과 그 제도적 가치가 어떻게 한 학생의 진로와 자기 이해를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작품입니다.

복수전공이 고민된다면

I. 전공 선택의 두 번째 기회

저는 고등학교 내내 미술을 전공하며 생활하였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작업실에서 보내며 작품을 구상하고 표현하는 일은 저의 일상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에서도 미술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미대 진학에는 아쉽게도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던 중,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글쓰기와 콘텐츠 기반의 학문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내 논술 전형에 도전하였고, 이를 통해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당시만 해도 이 선택이 제게 매우 자연스러운 방향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영상·광고·언론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에, 대학에서 이러한 흥미를 심화한다면 진로 역시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예상과 다른 감정들이 찾아왔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수업들은 분명 재미있고 배울 것이 많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흥미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 제 진로와 직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 팀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제 앞에 놓인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분야를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은 성적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첫 학기 학점은 3점 초·중반대에 머물렀고, 이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자신감에도 일정 부분 타격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 많았기에, 대학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는 단순히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문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정치외교학과의 '국제정치 이해'라는 정치외교학과 기초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수전공 과를 정하기 위해 여러 학과를 탐색하던 중 선택한 수업에 가까웠지만, 이 선택은 제가 대학에서 경험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수업이 진로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I. 새로운 학문을 만난 순간

정치외교학과의 기초 수업은 제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국제정치의 기본 구조, 국가 간 상호작용, 외교정책 결정 방식, 국제기구의 역할 등은 처음 듣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생성되었고, 그 질문을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정치외교학의 학습 방식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편안하게 느껴온 사고방식과 일치했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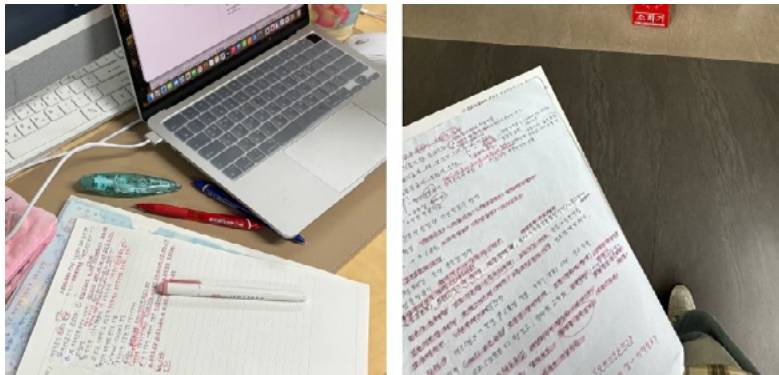
이 복수전공 선택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개념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과정,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방식, 현상과 사례를 연결해 설명하는 작업을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치외교학은 바로 이러한 사고 과정을 본질로 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외교 이론, 국가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각종 모델,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 과정은 저에게 유난히 잘 맞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분야를 전공해보고 싶다는 뚜렷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제 능력과 사고방식이 정치외교학이라는 학문과 맞아떨어졌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깊은 만족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결국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진로가 바뀌는 순간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성신여대의 복수전공 제도가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전공 제도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통해 의미 있는 두 번째 전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III. 성적의 반전

복수전공을 시작하자마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적이었습니다. 복수전공을 하자마자 성적이 올랐다는 것이 거짓말 같지만, 그전까지는 3점 초·중반대에서 머물던 성적이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들은 첫 학기부터 단숨에 3점대 후반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습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적의 변화는 공부량의 변화 때문도 맞지만, 학문과의 적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외교학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많고, 개념과 이론을 스스로 언어로 체계화하여 설명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즐거웠고, 어느 순간 공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주요 개념과 사례들의 흐름을 A4 용지에 정리하였고, 시험이 다가오면 예상 문제를 직접 작성하여 답안을 미리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 사고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주었고, 자연스럽게 성적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림1] 복수전공 이후 정립한 나만의 구조화 학습법으로 정리한 실제 공부 기록

더 흥미로웠던 점은 정치외교학에서 익힌 공부법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콘텐츠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 구성 등에서 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두 전공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복수전공이 단순히 전공을 하나 더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문이 상호보완되며 저의 전공 역량 전체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V. 두 전공의 만남이 열어준 길

정치외교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공공외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외교는 국제정치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학문으로, 한 국가가 세계 시민과 소통하고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문화, 지식, 가치 등을 전달하는 일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외교학에서 배운 국제정치 분석 능력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에서 배운 메시지 전략, 콘텐츠 제작 능력을 더하여 이는 제 진로 결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현대 공공외교는 단순한 외교 행사나 홍보 차원을 넘어서, SNS 콘텐츠, 영상, 카드 뉴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복합적 과정입니다. 저는 미디어 전공에서 익힌 실무적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대외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하여 여기에 정치외교학이 제공한 국제정치 구조와 외교 현상에 대한 이해가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외교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진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전공을 병행하며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두 전공이 서로를 충분히 보완할 뿐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외교학이 ‘왜’를 설명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은 ‘어떻게’를 설명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결합하면서 저는 제 진로의 방향성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V. 복전생으로서 누린 기회들

성신여대의 풍부한 다전공 제도는 저에게 새로운 학문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외교학과는 복수전공생에게도 주전공생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학과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전공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방청 프로그램 참여, 멘봉데이 동아리 활동, 콘텐츠 제작 활동 등 전공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실무 감각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학과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복수전공생 신분으로 한국 공공외교 연구회 학회 활동을 1년 동안 진행하며 국제정치 관련 세미나와 실무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정의과 논평대회에서 입상하며 학문적 성취와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복수전공생임에도 불구하고 영

원무역 자유민주주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은, 제가 선택한 전공과 진로에 대한 노력이 학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학과 내에서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업적 자신감과 전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외활동으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대외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발협력러너즈 활동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의 구조와 실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배우며 개발 협력 분야의 실무 감각을 익혔습니다. 또,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에서는 외교 현장의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외교정책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절차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PEC SOM3 회의 봉사활동에서는 국제회의 운영을 직접 지원하며 다자 협력의 구조와 현장 분위기를 몸소 경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종연구소 세종 청년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국제정세 분석 역량을 더욱 심화하고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과에서의 대내 활동을 통해 다져진 실무 감각과 자신감, 그리고 대외활동을 통해 축적한 실제 경험은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 공공외교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재 제가 목표로 하는 공공외교 분야, 특히 KF(한국국제교류재단) 업무와의 적합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Ⅶ. 성신여대 다전공 제도의 장점

성신여자대학교의 다전공 제도는 저와 같은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 진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성신여대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과 같이 다양한 전공 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은 뒤늦게 발견한 적성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고, 부전공은 관심 있는 분야를 비교적 부담 없이 폭넓게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특별한 제도 중 하나인 연계전공은 여러 학과의 커리큘럼을 조합하여 학생 스스로 하나의 전공 트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공외교 연계전공처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전공을 아우르는 학습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공 선택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다층적으로 확장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복수전공을 통해 저의 적성과 잘 맞는 학문인 정치외교학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을 기존 전공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성신여대의 다전공 제도는 전공 선택을 인생의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고정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탐색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여러 방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이며, 저는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다전공 성공 후기 “전공플루언서”기회를 통해 제가 느낀 이 가치를 많은 수정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VIII. 향후 진로 목표 및 결론

현재 저는 KF(한국국제교류재단) 진출을 목표로 삼고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는 한국의 공공외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제교류, 문화사업, 지식 확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에서 쌓은 국제정치 분석력과 외교 현상에 대한 이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에서 배운 콘텐츠 제작 역량과 메시지 전략, 그리고 여러 대외활동을 통해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통해 KF가 요구하는 역할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외교는 단순한 국가 이미지 홍보를 넘어 타국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두 전공을 통해 길러온 분석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외교를 보다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진로 선택이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경험한 모든 학습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입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진로는 결코 저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처럼 선택했던 수업이 제 적성을 발견하게 해주었고, 복수전공이라는 제도가 새로운 학문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전공에서 복전생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대외활동 참여 기회, 그리고 성신여대가 마련해 준 유연한 전공 선택 시스템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다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신여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치외교학이라는 전공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공공외교라는 진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걷고 있는 이 진로가 성신여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선물을 사회에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이끄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와 나누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전공 선택과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얻은 경험과 배움을 나누어, 그들 역시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선배가 되고자 합니다. 성신여대에서의 배움과 기회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두 개의 전공,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김희재 | 서비스디자인공학과

◎ 참가동기

서비스디자인공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해나가며, '사용자 중심'이라는 말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과 경험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도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사용자의 감정, 내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는 만들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저는 심리학이라는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복수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두 전공을 통해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인간에 대한 깊은 해를 동시에 갖춘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 여정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싶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작품설명

저는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심리학을 함께 공부하며 '사용자의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서비스디자인공학과에서 HCI, 사용자 여정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구조화하는 사고를 익혔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서비스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과 경험을 갖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보고자 심리학 복수전공을 시작했고, 문화심리학·성격심리학·정서심리학·이상심리학 등을 배우며 인간의 내면과 감정, 사고의 작용 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심리학과 건강심리학을 통해 사람의 정신적 어려움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복합적 요인의 결과임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를 실제로 고민해 보고자 임상 심리 연구실 인턴으로 참여해 데이터 분석·임상 연구 보조를 수행하며, 심리학적 통찰을 서비스 기획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다전공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전문성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심리학은 사용자 마음의 지도를 해독하는 언어가 되었고, 서비스디자인은 그 지도 위에 실질적 해결책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전공의 시너지를 통해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회복을 돕는 진정한 멘탈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글은 이러한 성장 과정과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담아낸 기록입니다.

두 개의 전공,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의 일상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춰진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편리함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립되고 불안해지고 있다. 대화보다 메시지가 익숙해지고, 공감보다 '좋아요'의 숫자가 더 빠르게 위로를 대신하는 시대. 나는 대학에 들어와 이 모순 앞에서 자주 멈춰 서곤 했다. 겉으로는 모두 밝고 활기찬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메말라 있는 듯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나에게 오래도록 잔상이 남았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 자신 또한 비슷한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데도 어딘가 공허하고, 정보는 넘쳐나는데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경험. 이 이상한 시대적 무게는, 내가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라는 길을 꿈꾸게 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었다. 인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붙잡아줄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결국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심리학'이라는 두 전공을 연결하는 나만의 여정이 되었다.

처음 서비스디자인공학과에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을 구조화한다는 개념에 큰 매력을 느꼈다.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수업에서 인간의 행동과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사용자가 어떤 디자인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다. 사용자 여정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어떤 흐름에서 감정적 고향을 느끼고, 어떤 지점에서 이탈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한 작업이었다. 마우스 클릭 하나에도 수많은 심리적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나를 설레게 했다.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은 분명 혁신적이었고, 그 도구들은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서비스디자인의 프레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계속 마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같은 인터페이스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직관적이라며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한다. 똑같은 서비스여도 누군가는 사용 경험에서 위안을 얻고, 누군가는 오히려 압박을 느낀다.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반복해도,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다.

그때 깨달았다. '행동을 분석한다고 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내면과 감정, 사고의 구조, 문화적 배경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게 나는 심리학과 복수전공을 결심하게 되었다.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디자인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하나씩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 문화심리학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개인이 속한 세계'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결국 사람은 사회적 맥락의 산물이며, 서비스는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코 의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격심리학과 정서심리학에서는 각 개인의 성향과 감정 체계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웠다. 이 수업들은 내가 '사용자'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서비스디자인에서 사용하는 페르소나나 타겟 설정 방식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특히 정서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정서의 작용 방식과 감정 조절 메커니즘은 나의 서비스 기획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기능적 편리함보다 감정적 안정감이 훨씬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며, 사람들의 모든 선택은 결국 '감정'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용 경험의 핵심은 결국 '감정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 이상심리학 수업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던 '정신건강'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어주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과정 전체를 이해하도록 했다. 우울, 불안, 외상 스트레스, 자존감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은 결코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맥락과 생물학적·인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임을 깊이 배우게 되었다.

특히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여기'에 주의를 머무르게 하는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교류를 지속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건강심리학의 핵심 원리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단지 '자기 계발 도구'나 '편리한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 나는 바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

서비스디자인의 논리성과 심리학의 깊이가 나의 사고 안에서 결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뷰할 때도 단순히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라고 묻지 않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 선택을 하게 만든 마음속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서비스 흐름을 설계할 때도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반응의 흔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보다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이 두 전공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심리학이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는 언어라면, 서비스디자인은 그 마음을 형태로 표현하는 언어였다. 심리학이 마음의 지도를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면, 서비스디자인은 그 지도 위에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론을 실제 현장에 연결하고 싶었던 나는, 임상 심리 연구실 인턴십을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실제 임상 연구 현장을 보조하며 경험을 쌓아갔다. 심리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숫자를 읽는 일이 아니었다. 데이터 한 줄 한 줄에는 누군가의 고통, 회복, 시도, 실패가 담겨있었다. 그 무게를 느끼며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은 나에게 연구 윤리와 전문성의 기준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또한 임상 장면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서비스 기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동시에 좋은 서비스가 사람의 회복을 도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도 분명하게 보았다.

임상 심리 연구자와 서비스 기획자의 관점은 다르지만, 나는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심리학적 통찰을 서비스 언어로 번역하고, 서비스적 요구를 심리학적 기

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 이 경험은 앞으로의 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이켜보면, 나의 다전공 여정은 단순히 두 개의 학위를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서비스디자인 공학과로부터 문제를 구조화하는 기술을 배웠고, 심리학과로부터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시선을 배웠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한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기능과 감정, 기술과 인간성, 데이터와 섬세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이 다전공 과정은 '전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앞으로 나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디지털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해 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 단순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게 돕고,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나는 기술이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심리학적 통찰과 디자인 사고의 융합 속에서 열린다고 생각한다.

나의 다전공 경험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온 시간이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고민하고,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회복의 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길이다.

백지 위에 그린 법과 외교, 나만의 길을 만든다

김민주 | 법학부

◎ 참가동기

입학 당시 선례가 없는 신설 학부인 '창의융합학부'에 들어와 느꼈던 막막함과 불안함이 어떻게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의 원동력으로 바뀌었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전공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법학과 정치외교가 결합하여 '외교부 영사직'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찾아가는 저의 치열한 성장 과정을 통해, 전공 선택을 고민하거나 융합적 진로를 꿈꾸는 학우들에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전해주고 싶어 본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작품설명

본 에세이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무전공' 신입생이 지난 2년간 스스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며 겪은 도전과 성장의 기록입니다. 1학년, 법 관련 교양 수업에서 겪은 좌절을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하여 성취를 이루고, 교수님 상담과 현직자 특강을 통해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융합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강의실을 넘어 학생회와 총학생회 학생 자치국 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 학칙 해석 및 제정 등 법을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서술했습니다. 또한, UNSA(유엔 한국 학생협회) 활동을 통해 국제 이슈와 외교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했습니다. 법학 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결합하기 위해 정치외교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고, '영사법무 사례분석' 수업을 통해 '외교부 영사직'이라는 명확한 진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백지 위에 그린 법과 외교, 나만의 길을 만든다

성신여자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창의융합학부’라는, 당시에는 선례가 없던 신설 학부에 입학하여 전공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은 거대한 물음표로 다가왔습니다.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무전공’의 자유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안함을 ‘방향’이 아닌 ‘경험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기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입학 전부터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법’이라는 학문이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지, 나는 어떤 진로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으로 대학 생활 2년을 채웠습니다. 이 글은 백지장을 받아 든 신입생이 그 위에 스스로 법학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정치외교라는 가치를 뽐으며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한 개인으로서도 성장해가는 치열한 기록입니다.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1학년 1학기 법학부 전공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창 시절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법 공부가 수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공 수업에서 마주한 생소한 법률 용어와 참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복잡한 법리는 저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특히 1학기에 수강한 헌법 관련 교양 과목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C+라는 아쉬운 성적을 받았을 때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학년인 저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행을 바라는 대신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다시 읽었고, 복잡한 법리 구조는 손이 아플 때까지 쓰며 암기했습니다. 한 번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던 과목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공부해보니 헌법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웠고,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며 저는 ‘적성’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만들어 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2학기 ‘헌법 입문’ 과목에서 A+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올랐다는 기쁨도 컸지만, 한번 실패했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 효능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넘어,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의융합학부 소속이라 법학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제약도 있었지만, 저는 법학부에서 주최한 ‘법과대학 LED 브라운 백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실무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경찰로 근무 중인 선배님의 강연이었습니다. 1학년 학부 시절 심리학 과를 복수전공하여 특채로 경찰관으로 입문하셨다는 경험담은, 법학 외길만 생각했던 저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도 능해야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은 훗날 복수전공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법학부 전공 설명회에서 김세준 교수님께 용기를 내어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소속 학과가 없다는 불안감과 진로 설정에 대한 막연함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중 가장 크게 다가왔던 말은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다. 공부에만 얽매이지 말고,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넓게 보라.” 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학업 압박에 짓눌려 있던 제게 용기를 심어주었고, 직업 하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로를 설계하는 유연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교수님과의 상담은 제가 창의융합학부의 목적을 깨닫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보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갔습니다.

교수님의 조언대로 저는 강의실 밖으로도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먼저, 신설된 창의융합학부 학우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초대 집행위원회 ‘도약’의 인권복지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無)’인 상황에서 ‘유(有)’를 만드는 과정은 매일 난관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산도, 전년도인 인수인계도 없는 상황에서 기획한 ‘간식 행사’였습니다. 저에게 간식 행사는 단순히 학우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회비가 없는 창의융합학부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안을 작성하여 창의융합교학팀에게 협조와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회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설득과 협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한 팀을 이끌어보며 협력과 조율의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서툰 점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력과 타인을 설득하는 협상력을 몸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나서서 일하고, 주장하는 것을 즐기고 잘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터득하며 개인으로서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국제 이슈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엔 한국 학생협회(UNSA) 성인지회에 입부했습니다. 성신 MUN(모의유엔)에서 인도 대표단으로 활동하며 ODA와 관련된 의제를 두고 타 국가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하며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전공 지식과는 거리가 있는 의제여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외교의 묘미가 저에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저에게 ‘국제법’과 ‘외교’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2학년이 되어 법학부로 정식 진입한 후, 저는 총학생회 학생 자치국장과 법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자치국은 성신의 학생 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각종 의결기구를 총괄하는 국서입니다. 법제위원회는 총학생회 회 세칙을 검토하며 각 단위의 회 세칙 해석을 돕는 기구입니다. 저는 이 활동들을 통해 실무적인 법리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로는 미술대학에서 법제위원회에 총학생회칙 관련 문의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A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누군가는 B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고 세칙의 불확실성, 포괄성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법의 개념을 적용해 서로 다른 해석을 조율하고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또한, 학과별로 다른 학년 대표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년 대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조, 항, 호 등 법적 체계를 갖춘 문서를 직접 작성하며 법률 용어를 체화했고, 조문 간의 모순이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는 전공 수업 내용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법학부 학술제 ‘LEAD’에 소논문을 제출하며 학문적인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 발전에 따른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를 통해 동기와 ‘시 법인격 부여’라는 소주제를 설정하여 소논문을 작성하

였습니다. 주된 연구 목적은 시의 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시에게 법인과 같은 법인격이 부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들로만은 시 법인격 부여를 완성하기 위한 논리구조가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리적 비약을 해소하여 미래 생겨날 시 범죄들에 대비하고자 연구하였습니다. 다양한 논문들을 읽어보고 많은 법조문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동기와 의견을 나누며 학습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소논문을 완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학문적으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아 아쉬움이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글을 읽으며 공부했던 1학년 때와는 다르게 2학년 때에는 글을 읽고 체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나의 주장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실무에서 이용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교에 대한 마음을 저버릴 수 없어 UNSA 활동도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다양한 회원들과 국제 문제를 토론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법리적 사고를 통해 외교를 하고,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국내법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법의 존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1학년 때에는 국내 무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UNSA 활동을 통해 국제적 무대에 대한 갈망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저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확립해 준 것은 2학년 2학기에 수강 중인 '영사법무 사례 분석' 수업이었습니다. 1학년 때 UNSA 활동하며 키웠던 국제사회에 관한 관심과, 주전공인 법학 지식이 만나는 접점이 이 수업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범국가적인 형사 문제의 해결, 난민 체류 문제 등 실제 외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학습했습니다. 막연히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법을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외교부 영사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대변하는 일이야말로, 제가 가진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수전공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법학과 정치외교학이 융합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창의융합학부였기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처음 무전공으로 입학에 소속 학과가 없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한 학문에만 얽매이지 않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학 초기, 백지장 같았던 제 대학 생활은 이제 '법'과 '외교'라는 뚜렷한 색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전공 입학이 주었던 불안감은, 오히려 정해진 길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창의융합학부의 취지인 '자기주도적 인재'로서의 삶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 정해 준 길을 걷지 않았기에 불안했지만, 그랬기에 남들과 다른 저만의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창의융합학부에서 시작된 저의 작은 날갯짓은 이제 외교부라는 더 큰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 길을 만드는 '진정한 창의융합 인재'로서의 삶을 살아 나갈 것입니다.

복수전공, 희망편의 길

이승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참가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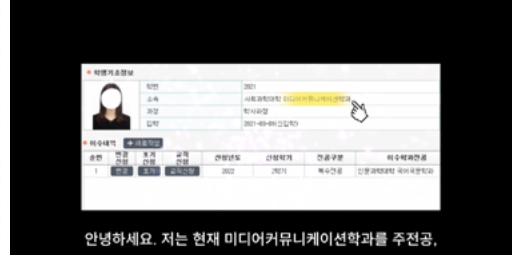
학교에 다니면서 복수전공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만족하고 있는 저의 사례가 희망편이라고 생각해서, 복수전공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작품설명 #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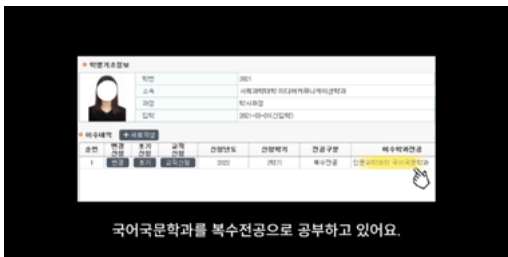
복수전공을 하게 된 계기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복수전공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복수전공을 고르는 팁, 복수전공 학과 생활 팁 등,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복수전공은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직접 복수전공을 하면서 학습 성과를 거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복수전공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풍부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수전공, 희망편의 길

#UCC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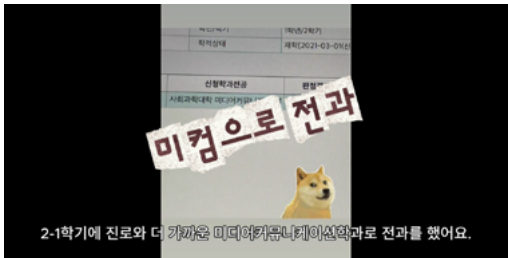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주전공,



국어국문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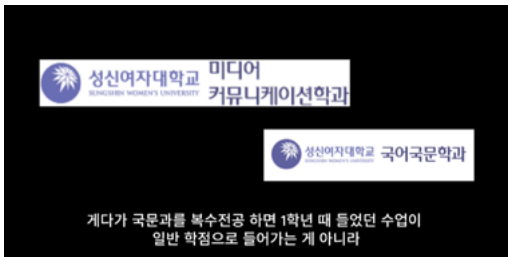
정시로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2-1학기에 전과와 더 가까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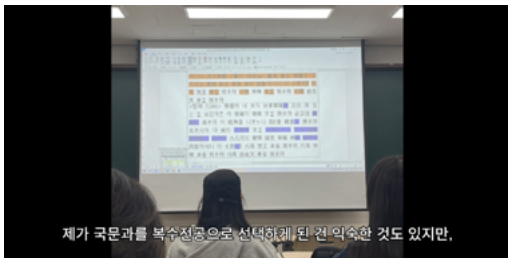
1학년 때 경험해보니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국문과를 복수전공 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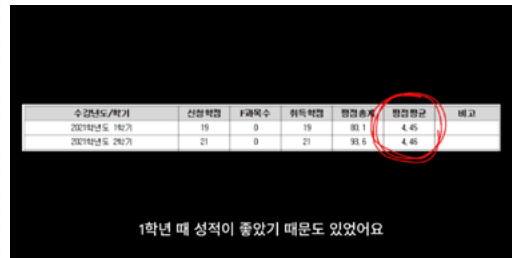
게다가 국문과를 복수전공 하면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이 일반 학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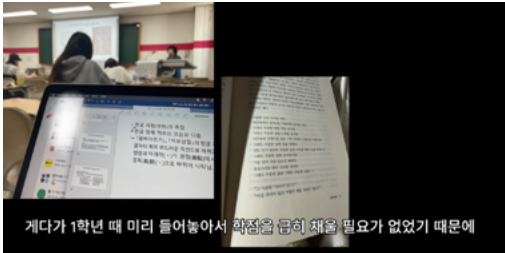
복수전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득이었어요.



제가 국문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건 익숙한 것도 있지만,



1학년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도 있었어요



게다가 1학년 때 미리 들어놓아서 학점을 많이 채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022/1	SS050000	통합 고전의 산책	역사인해역	핵심교양
	SS030400	사회적 이슈의 쟁반 논쟁	사회인해역	핵심교양
	EM010300	인간커뮤니케이션	미컴	1영역 핵심전공
	EM010400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미컴	1영역 핵심전공
	EM020100	전략 커뮤니케이션 개론	미컴	1영역 핵심전공
	EM030200	영상미학	미컴	2영역 핵심전공

전과한 첫 학기에는 미컴 수업만 들으면서 적응기간을 거쳤어요



이후 필드트립, 기업탐방 등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선택!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도 참여하고.



복수전공인 국문과 수업으로 학점 교류도 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복수전공 관련 분야의 공모전에도 참가하며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복수전공 고르는 팁



1. 희망하는 전공수업 미리 들어보기

전공명	전공수업명	전공명 (교과목명)	개설학기	개설학기	필수	비고
언어문화전공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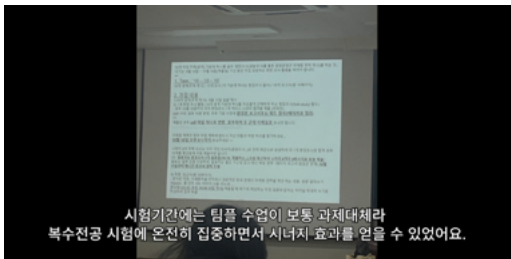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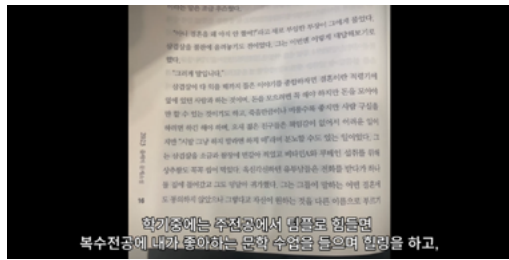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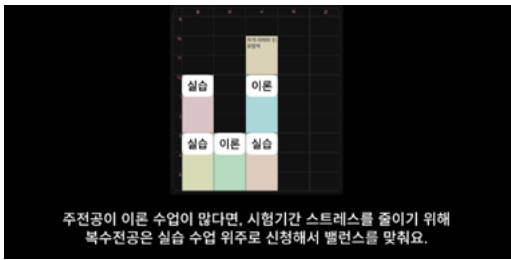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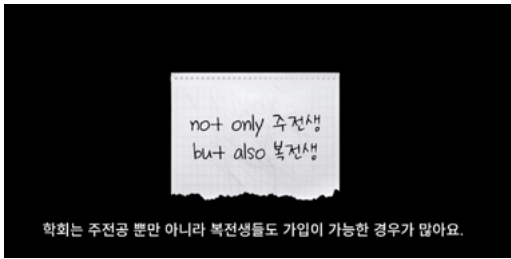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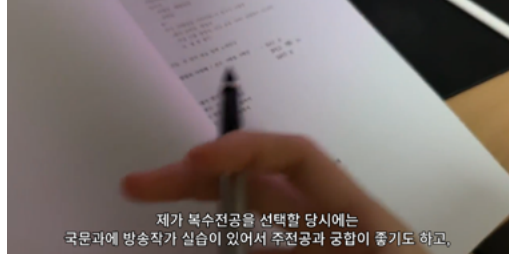
복수전공을 생각 중이시다면 어떤 전공이 내게 맞는지 미리미리 찾아보고.

전공명	전공수업명	전공명 (교과목명)	개설학기	개설학기	필수	비고
언어문화전공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언어문화이론	국어학개론 (언어문화이론)	제1학	제1학	1	필수

개론 등 난이도가 낮아 부담 없는 수업을 저장할 때 들어보면 좋아요.



2. 진로와 연관이 있는 전공 선택



2025
MADE IN SUNGSHIN
공모전 수상작 성과집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장

발행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전화 : 02-920-7779

이메일 : ctl@sungshin.ac.kr

이 책의 저작권은 성신여자대학교에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 교수학습지원센터
SUNGSHIN WOMEN'S UNIVERSITY | CENTER OF TEACHING AND LEARNING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